일본 후쿠시마 · 인근 수산물 수입 반대

익산시의회, 유재구 의원 발의… 결의안 채택

익산시의회(의장 최종오)가 15일 제251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유재구 의원이 발의한 '일본 후쿠시마 및 인근 8개 현 수산물 수입 반대 결의안'을 채택했다.

시의회는 결의안을 통해 정부는 국민과 미래 세대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후쿠시마와 인근 8개 현의 수산물 수입을 금지할 것을 촉구했다.

결의안에는 후쿠시마 및 인근 8개 현 수산물 수입 금지, 일본정부의 방사능 오염수 관련 정보 투명한 공개 및 수산물 방사성물질 검사 확대, 오염수 방류 시 일본산 수산물 수입 전면 금지 의사 천명 등의 담겨있다.

유재구 의원은 "일본 정부가 오염수 방류를 앞두고 유럽연합(EU) 등을 상대로 후쿠시마 수산물의 수입 규제를 해제해 달라는 요구를 강도 높게 주장하며 수입 철폐 흐름을 만들고 있다"면서 본 결의안의 제안하게 된 배경을 밝혔다.

이어 유 의원은 "후쿠시마현 인근 지역은 방사성물질 검출률이 타 지역에 비해 7배가 높아 해당 지역 수산물 수입 결정에 철저를 기해야한다"고 강조하며, "만약 오염수가 방류되면 정부가 일본산 수산물의 전면 수입 금지까지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정부에 강력한 대응을 촉구했다.

이날 채택한 결의안을 대통령비서실장, 대한민국국회의장, 국무총리비서실장(정무기획비서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기획재정부장관, 외교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등에 전달할 예정이다. /익산=이재춘 기자

익산다이로움, 충전인센티브 선지급… 7월부터 시행

소비증대 · 골목경제 활성화 기여

지역화폐 익산다이로움의 충전인센티브 지급방식이 7월 1일부터 바뀐다.

충전 인센티브 방식을 충전 시 일괄 지급하는 선지급 형태로 변경한다. 행정안전부 지침을 반영해 충전인센티브 지급 구매도액을 월100만원에서 월70만원으로 조정한다. 월 보유한도는 개인당 150만원으로 동일하다.

이번 변경은 골목경제 활성화와 더불어 이용자 편리성 개선도 염두한 것으로 충전 인센티브가 캐시백(충전금 사용 시 지급방식)에서 선지급(충전 시 먼저 지급방식)으로 쌓이게 된다. 스마트폰이 아닌 일반폰 사용자는 동일하게 농협 창구에 방문해 충전하면 된다.

충전혜택을 금액에 따라 50만원까지는 10%, 50만원 초과 70만원까지는 5%의 인센티브를 충전과 함께 동시에 받게 된다.

따라서 50만원 충전 시 55만원(5만원은 충전 인센티브)을, 70만원 충전 시 76만원을(50만원까지 5만원 · 50~70만원까지 1만원 충전 인센티브) 충전할 때 충전금과 함께 즉시 지급받게 된다.

인센티브와 별도로 소비촉진지원금이 유지돼 다음 달 20일 충전사용금액의 50만원까지 10%, 50만원초과 70만원까지 5%가 지급된다.

/익산=이재춘 기자

삼양이노켐 · 한국바스프, 지방세 모범납세 법인 선정… 도지사 표창

지방세를 성실하게 납부해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한 주식회사 삼양이노켐(주)과 한국바스프(주) 군산공장이 2023년도 모범납세법인으로 선정돼 전라북도지사 표창을 받았다.

모범납세법인은 최근 3년간 체납된 세금이 없고, 매년 3건 이상, 5천만원 이상을 납부한 법인으로서 지방세 납부액, 지역경제 기여도, 기부 및 봉사 활동 등의 사회 공헌도 등을 고려해 시의 공적 심사 후 전라북도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선정됐다.

표창장 수여는 지난 14일 군산시청에서 두 기업을 대표해 삼양이노켐 정연일 생산PU장과 한국바스프 정월규 공장장 및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에 진행됐다.

삼양이노켐(주)은 지난 2012년 가동 이후 지속적인 투자와 설비개선을 통한 수익 창출로 지방재정 확충 및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 불우이웃돕기에 동참해 성금을 기부하는 등 사회적 공헌활동으로 지역사회발전에 크게 기여한 점을 공로로 인정받았다.

한국바스프(주) 군산공장은 2003년 공장 설립 이후 고부가가치 산업인 비타민 B2를 생산하며 고용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했다. 또, 매년 지역 내 장애인 거주시설에 기부금을 전달하는 등 사회봉사 활동을 수행해 온 기업이다.

이들 법인은 이달부터 내년 5월말까지 1년동안 7개 시설 이용료 할인 및 감면, NH농협은행 및 전북은행에서의 대출금리 및 예금금리 우대, 일부 금융수수료 면제 등의 금융 우대혜택을 받을 수 있다. /군산=김판곤 기자

연구단체 회원들과 전문가, 관계 공무원 등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익산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방안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다각적 지원방안 마련 · 제시 할 것"

익산시의회 '빈집 · 소규모주택 정비방안' 마련 착수보고회

익산시의회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대한 현 상황을 점검하고, 정비 활성화를 위해 지자체 차원의 다각적 지원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나섰다.

익산시의회 의원연구단체 '소규모주택 정비 활성화방안 연구회(대표의원 김충영)'는 15일 연구단체 회원들과 전문가, 관계 공무원 등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익산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방안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용역 시행사인 (사)어반베이스캠프로부터 익산시 빈집과 노후?불량건축물에 대한 현황과 지자체의 선도적 역할이 요구되는 정비방안 제시 등 익산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방안 마련를 위한 계획보고와 이에 대한 연구회 위원들의 방향 논의 및 질의응답으로 진행되었다.

연구단체 대표인 김충영 의원은 "지역커뮤니티의 쇠퇴를 가속시키는 빈집과 노후 · 불량건축물 밀집지역에 대한 제도적 지원근거는 지난 2018년 소규모주택정비법 제정으로 마련되었지만, 여전히 주민스스로 정비사업을 추진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실정"이라며 "정비 활성화를 위해 지자체 차원의 선도적 역할과 다각적 지원방안을 마련 · 제시할 예정이다."고 전하였다.

한편, 익산시의회 소규모주택 정비 활성화방안 연구회는 김충영 대표의원을 비롯하여 김미선 의원, 박종대 의원, 손진영 의원, 송영자 의원, 이중선 의원, 조은희 의원, 최재현 의원, 최종오 의원 등 9명으로 구성되었으며, 올해 11월말까지 익산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다양한 연구활동을 추진할 예정이다.

/익산=이재춘기자

'익산방문의 해' 서울 연계 관광상품 개발 박차

익산시가 성공적인 '2023 익산방문의 해' 추진을 위해 서울과 연계해 관광상품개발에 박차를 가한다.

서울의 여행사와 서울관광재단 임직원 40여명이 서울관광재단 주최 '2023 서울-지방 상생 팸투어'로 15일부터 16일까지 이틀간 익산을 방문했다.

이번 팸투어는 서울관광재단이 개최한 '서울-지방 연계 관광상품 공모전' 선정사 대상으로 추진되었으며, 지역관광 활성화에 적극적인 여행사가 고품질의 서울-익산 연계 관광상품을 확대 개발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번 팸투어를 통해 참가자는 미륵사지, 교도소 세트장 등 익산시 대표 관광지를 방문하고, 주요 호텔시설 및 인기 카페를 답사하여 익산시가 보유한 관광 인프라를 파악했다.

아울러 익산의 유기농 식재료로 만든 미식을 맛보고, 고스락에서 직접 고추장을 만들어보며 미식관광, 체험관광 등 테마관광코스를 기획하는데 아이디어를 얻었다.

시의 풍부한 역사와 문화 관광자원에 대한 이해도 제고를 바탕으로 관광상품 개발을 확대하는 발판을 마련하여 익산시 관광 경쟁력을 높이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시 관계자는 "이번 팸투어를 계기로 서울과 익산 간 관광 생태계를 조성하고 익산만의 특색 있는 관광 연계 상품 개발을 적극 돕겠다"고 말했다.

/익산=이재춘기자

지역 소식통

정헌율 익산시장, 아파트 건설현장 특별 안전점검

정헌율 익산시장이 15일 마동자이 아파트 공사 현장을 방문해 안전점검을 실시했다.

이번 점검은 최근 인천 검단신도시의 한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지하 주차장 붕괴 사고가 발생한 데 따른 조치다.

정 시장은 직접 현장을 방문해 민원 불편 사항과 공사 추진 상황을 살피고 안전 기준 준수 여부를 점검했다.

특히 공사 현장 주변 지반 현황, 지하층 흙막이 변이 여부, 인근 시설물 안전 상태 등을 확인하고 안전 관리를 당부했다.

한편 시는 지난 5월부터 지역 아파트 공사 현장 17개소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주요 점검사항은 △우기(장마)대비 △태풍 대비 타워크레인 점검 △추락사고 예방 안전점검 △공사장 현장 주변 지반 현황 △지하층 흙막이 변이 유무 △인근 시설물 안전 상태 △통행지장 및 배수 상황 △기타 시민 불편 요소 등이다.

/익산=이재춘기자

강임준 군산시장, 친절 공무원들과 소통 시간 가져

강임준 군산시장이 일선 현장에서 묵묵히 일하며 친절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한 공무원들과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군산시는 15일 강 시장이 2022~23년 친절 공무원으로 선정된 담당자 중 10명의 직원들과 오찬 간담회를 통해 친절 공무원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소통의 시간을 갖는 자리를 가졌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를 통해 일선 현장에서 묵묵히 일하며 시민들에게 친절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한 공무원들을 칭찬하고 감정노동과 민원응대로 지친 민원담당 공무원의 노고를 격려했다.

친절 공무원은 시 홈페이지 '칭찬합시다', 칭찬엽서, 유선 등을 통해 시민들과 동료 공무원이 추천한 민원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1차 서면 심의와 2차 민원조정위원회 심사를 통해 분기별 5명을 선정하고 있다. /군산=김판곤 기자